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h1>계수나무</h1>	발행인: 박성주 교장선생님 편 집: 4학년 어린이일동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203 ☎ 070-7097-1973 http://gyesu-cho.es.kr		

☺ 우리 학교 운동회가 열려~



지난 5월 1일 우리 학교 운동회 한마당이 펼쳐졌다. 식전 행사로 우리 학교 풍물부가 나와 한껏 흥을 돋구며 운동회가 열림을 알렸고 이후 교장 선생님 말씀, 운영위원장 말씀과 교감 선생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 부모님들과 함께 펼쳐지는 단체 경기들, 개인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로 우리들의 기량을 맘껏 뽐내며 경기에 임했고 승패와 관계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렸다. 엄마, 아빠들의 달리기와 줄다리기도 펼쳐지면서 승부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 마지막은 역시 계주였다. 청군과 백군이 앞치락 뒤치락 하며 달리기를 한 결과 결국은 청군이 이겼다. 전체적으로 결과도 청군이 이겼지만 응원에서는 백군이 이기기도 했다. 승패와 관련 없이 서로 최선을 다 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몸과 마음이 튼튼해져서 더 신나는 운동회, 가족과 한마음이 되는 운동회가 펼쳐지길 바란다.

☺ 4학년 현장체험학습 가다~

지난 4월 24일 4학년은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교통수단'을 주제통합학습으로 하고 있는 4학년은 철도와 항공을 알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에 가서 비행기를 타기 위한 수속 과정을 교육 받은 후 직접 비행기표를 끊어 보고 모의 여권을 가지고 출국 심사를 받아 보았다. 우리가 보통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리무진 버스를 타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비행기 타기 위한 수속 과정을 밟기보다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에 와서 수하물(짐)을 미리 맡기고 비행기표까지 끊고 출국 심사까지 완료한 후에 바로 공항 직통 열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가서 출국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을 알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홍보관 앞 인천국제공항 카트 타고 이동

♡ 4월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온 후 소감

한 이 선	걸어다녀서 힘들었지만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있었다.
이 채 현	인천 공항과 서울역 도심 공항 터미널에 가 본 적 있지만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 선 규	난생 처음 비행기를 봐서 좋았고 매우 신기했다. 꼭 타 보고 싶다.
황 정 아	공항 철도 타거나 비행기 탈 때 몸수색 하는 것, 비행기에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을 알게 되었다.
이 유 정	보안검사를 하는 기계가 신기했고 많은 일을 거쳐 비행기를 타야 하지만 정말 신기하고 많은 지식을 얻었다.
김 수 민	비행기 탈 때 가지고 타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았고 출국 심사할 때 좀 긴장 되었지만 실제 같아서 재미있었다.
김 세 민	직통 열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항공이 더욱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이 준 목	비행기 타기 전에 많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 직통 열차 타는 것이 재미있었다.
김 세 인	직통열차가 원래 거쳐야 하는 여덟 개 정거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과 열차가 달릴 때 필요한 볼트가 25000볼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의 현	직통열차는 알고 있었지만 열차가 한번 갈 때 25000볼트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다.
박 준 하	자기부상열차가 자석으로 가는 열차이고 직통 열차 탈 때 8정거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었다.
방 수 연	인천국제공항에 가기 전 직통열차를 타 봤는데 도중에 멈추지 않고 한번에 공항에 가기 때문에 좋았다.
우 선 영	비행기 타기 전에 몸수색과 티켓 발권과 출국심사를 왜 하는지 알게 되었고 공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김 민 성	비행기 타기 전에 티켓 발권, 보안수색, 출국 심사를 하는 방법을 알았고 비행기를 타는 방법을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비행기를 잘 탈 수 있을 것 같다.
류 자 랑	보안 수색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신기했고 직통 열차가 편하게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비행기도 타 보았으면 좋겠다.
김 민 준	서울역 도심 공항 터미널을 처음 보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해야 할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유 민	실제로 비행기를 보게 되어서 좋았고 인천국제공항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김 인 섭	서울역과 인천국제 공항과 열차를 더 알게 되고 비행기에 타는 방법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다음에 더 많이 알고 싶다.
황 정 인	몸 수색 탐색기를 잘 알게 되었고 티켓을 끊으니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신기했다.
신 수 민	해외에 가지 못해서 해외에 갈 때 비행기 타는 수속 과정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게 되어서 기쁘다.
최 민 서	자기부상 열차 홍보관에 가서 OX 퀴즈 푸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 다 맞추면 자동으로 선물이 나오는데 다 맞추지 못해서 아쉬웠다.



☼ 4학년 회장, 부회장 인터뷰

지난 3월 6일에 우리반 회장, 부회장을 선출했다. 우리반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나와 투표를 한 결과 우리 학년은 회장 박준하 친구와 부회장 김인섭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학년 회장, 부회장을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질문1: 왜 회장이 되고 싶었습니까?

대답 : 3학년 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질문2: 소감이 어떻습니까?

대답 : 좋습니다.

질문3: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 : 재미있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질문1: 왜 부회장이 되고 싶었습니까?

대답 : 준목이가 추천해줬기 때문입니다.

질문2: 소감이 어떻습니까?

대답 : 기쁩니다.

질문3: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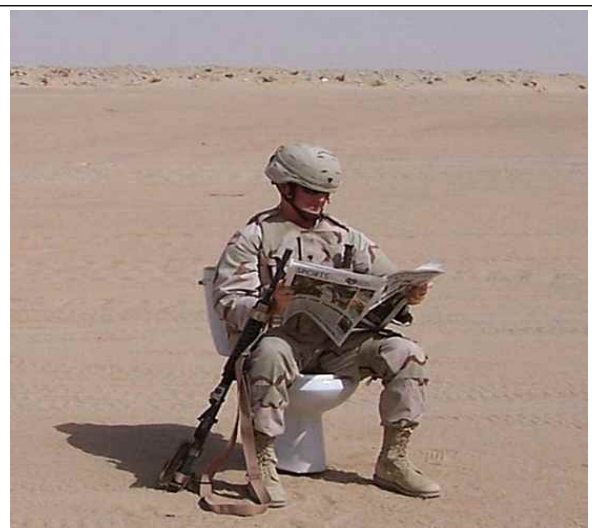
대답 : 제 단점을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1 이의현 기자>

☼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스틴 파워의 미니 같다는 생각이.....



저 사막에서 변기는 이해가 되어도 신문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

★ 솜 씨 마 당 ★

누 나

김세민

누나 품에 안기면 정말 따뜻하고 좋아
 누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는 걸까?
 나는야 정말로 누나가 좋아

우리 학교

김세민

우리학교는 최고 학교
 영화 찍고, 최고 학교
 선생님 모두 친절한 최고 학교
 우리학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독후감

방귀쟁이 며느리를 보고. . .

- 김세민 -

나는 방귀쟁이 며느리가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다. 방귀가 얼마나 세었으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날라갔을까?
 그리고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어서
 슬피 울때, 나는 며느리가 다시는 신랑을 만나지
 못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부터는 방귀를 끼려면
 마당에서 끼라고 하지. . . 쫓아내는 것은 너무하였다.
 하지만 쫓겨나서 길을 걷다 만난 산적을 물리칠
 때는 존경스러웠다. 왜냐하면 방귀능력도 놀랍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정신을 가지고서 몽롱했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서
 산적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다면 부끄러워서 쓰지도 못할 텐데. . .
 방귀쟁이 며느리는 참 대단하다.

★ 우리 반의 이모 저모~!



우리 반은 피구 짱!~(체육시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며...(전교어린이회 선거)



생일 축하 및 요리 실습



학부모 공개 수업



텃밭에서 모종 심기

모듬 일기 감상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날씨 : 조금의 바람이 불지만 놀기에는 괜찮을 듯

제목 : 즐거운 토의 시간

오늘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했다. 그때 급식을 할 때에 어떻게 줄을 설지에 대해 토의했었다. 모듬끼리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모듬이 다 하고 마침 신호를 하니 민준이가 칭찬이로서 “잘 했어요!”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 민준이의 칭찬 한 마디에 우리 모듬원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듬끼리 토의했을 때 결론은 ‘순차적으로 줄을 서자.’로 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앞자리에 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뒷 번호인 친구들은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오래 기다리든, 짧게 기다리든 다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나중에 모듬 역할을 바꾸는 날 내가 칭찬이 역을 맡게 된다면 민준이처럼 칭찬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모듬의 분위기를 밝고 즐겁게 바꿀 것이다.

*** 모듬원 댓글**

유 민 : 글씨고 예쁘고 너의 생각을 잘 썼어.

민 준 : 내 얘기를 써 줘서 고마워 그리고 글씨도 참 잘 썼어!

인 섭 : 잘 썼어요~

***부모님 댓글**

민준이의 칭찬 한마디가 서먹한 토의 분위기를 밝게 했구나. 이왕 하는 말이면 가시돌친 말보단 상대방을 배려해서 기분 좋게 말해 준다면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행복할거야.♡

***선생님 댓글**

민준이가 모듬 안에서 분위기 조성을 잘 하고 있구나!~ 아이스크림 모듬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모습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날씨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금방이라도 홍수가 날 것 같은 날씨

제목 : 정인의의 장애체험

오늘은 우리 모두의 칭찬이인 정인이가 장애 체험을 하는 날이다. 정인의의 장애 체험이 ‘뿌연 안경 쓰고 4교시까지 생활하기’였다. 그런데 뿌연 안경 대신 안대를 썼다. 우리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1, 2교시 사회 시간이었다. 1교시 종이 치니까 정인이가 아주 힘들게 사회, 경기도의 생활, 사회과 부도의 책을 꺼냈다. 오늘은 인구 분포도를 배웠는데 그때 세인과 나, 그리고 민서까지 모두 총동원해서 한번 이상은 정인을를 도와 주었다. 모두 정인을를 꼭 도와 주어야 했던 이유는 정인이가 글씨를 꼭 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협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한 것 같았다. 금요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냐하면 바로 내가 안대를 쓰기 때문이다.

* 친구들의 댓글

민서 : 박지윤이 널 도와 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세인 : 그러게...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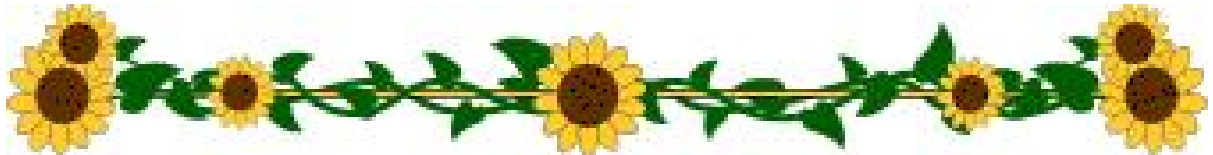
정인 :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부모님의 댓글

평소엔 주위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바라기 모둠에서 직접 체험하며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몸과 맘이 불편한 이웃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도와 주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 선생님의 댓글

장애 체험하며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했어요!



계수나무는 학생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학교 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학교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